광주·전남 올 개인회생 신청자 3853명

가계부채 급증 속 지난해 동기보다 5% 늘어

저소득층 빚 돌려막기 대출 증가…서민경제 파탄 우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전남 지역 역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우스푸어 등 대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으로 내몰리는 한계계층도 증가해 서민경제 파탄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금융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광주·전남의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385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5%(181명) 가량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09년 3869명에서 2010년 2821명으로 줄었다가 2011년 3359명, 2012년 4077명으로 빠르게 늘어 지난해(4559명)는 사상 처음으로 4500명을 넘어섰으며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개인회생 신청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의 확대와 상환 실패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최근 5년간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빚이 있는 저소득층 자영업 가구의 부채상환부담률(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은 117.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대출사유에서도 상황 악화가 뚜렷했다. 저소득층은 내 집 마련 등 자산축적을 위한 대출보다 전·월세나 빚 돌려막기 등 목적으로 대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저소득층은 은행권보다 대출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으로 점차 밀려나고 있다.

소득 1분위 중 올 들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가구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반면, 비은행금융기관과 보험사, 기타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 가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상황은 저소득층의 대출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었거나 신용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아직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준은 아니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부동산대출 규제를 풀고 금리를 계속 낮추며 빚 내기를 권하다 보니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금처럼 저소득층·저신용층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면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출 부실화, 금융 불안정성 증대로 이어질게 자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소비위축을 가져와 경기회복은 더욱 멀어진다고 전망한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느리게 하고 부채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최소한 생계형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여 경기를 살리는 데 정책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4년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광주·전남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31조57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조262억원(7.1%포인트) 증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추위엔 털모자가 최고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 1일 오후 백화점 모자매장을 찾은 여성 고객이 털모자를 써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65.22 (-15.56) 금리 2.07%

▼ 코스닥 539.45 (-5.63) ▲ 환율 1113.50원 (+5.60)

광주은행 임원급 인사 단행 … 부행장에 송종욱

광주은행(행장 김한)이 1일 임원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은행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 14명 중 9명이 은행을 떠나 대규모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광주은행 민영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인사에서는 송종욱 전 광주은행 부행장이 새로 부행장에 임명됐으며, 전 북은행 부행장을 지낸 장수연씨도 여신·자금담당 부행장보로 광주은행에 자리를 잡았다. 또 정순자 염주지점장은 본부장으로, 오영수 여수지점장과 서재수 신세계지점장은 영업본부장으로 각각 발령됐다. 새로 임원이 된 이들 5명의 임기는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다.

기존 임원 중에서는 양승재·김양수 부행장보, 김환진 영업본부장, 강인식·신명호 본부장 등 5명이 연임됐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송종욱 부행장

장수연 부행장보

한편, 광주은행의 이번 임원급 인사로 부행장은 1명 체제에 부행장보는 3명으로 줄었으며, 본부장은 8명에서 6명으로 2명이 줄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상의, 금호타이어 임단협 조속 타결 요청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1일 광주상의에서 허용대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과 접견하고, 올해 금호타이어 임단협에 대해 사측과 원만한 교섭을 통해 조속히 합의를 이뤄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0년 워크아웃 이후 금호타이어 노조가 기업의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성실 근로와 쟁의 없는 평화적 사업장을 만들어 가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워크아웃 졸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임단협의 경우도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조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허 지회장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11월14일 협상결렬을 선언한바 있으며 2~3일께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기아차 지난달 국내 판매 4만대 … 2년만에 최대

기아자동차가 2년여 만에 국내 최대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

기아차는 지난 11월 국내 4만4500대, 해외 22만3234대 등 총 26만7734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보다 4.1%, 지난 10월보다는 15.6% 증가한 수치다.

기아차는 적극적인 판촉 활동과 신형 쏘렌토 등의 신차효과에 힘입어 국내 판매는 2012년 12월(4만6514대) 이래 23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냈고, 해외 판매도 호조를 이어가 전체 판매가 지난해보다 신장했다고 밝혔다.

국내 판매는 올 뉴 쏘렌토와 올 뉴 카니발이 신차효과를 이어가고, 경차 모닝, 스포티지R, K3, K5 등 주력 차종들이 판매를 견인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2% 늘었다. 신형 쏘렌토와 신형 카니발은 지난달 각각 6157대, 4751대 팔렸고, 출고 대기 물량도 각각 9000대와 1만2000여 대에 달한다.

기아차의 11월 판매는 노조 파업의 영향으로 생산이 위축된 전달에 비해서는 국내에서는 20.3%, 해외에서는 14.7% 판매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 또 올 들어 11월까지 기아차의 누적 판매실적은 국내 41만7182대, 해외 234만1658대 등 총 275만8840대로 지난해보다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 진곡산단·장성 나노산단 분양률 높다

입지조건 좋고 법인·재산세 감면 혜택 영향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이선제)가 분양하고 있는 광주 진곡일반산업단지와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이 타시도 산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에 따르면 진곡산단 및 나노산단의 현재 분양률은 각각 47%, 78%(산업용지 기준)에 이르고 있다.

진곡산단은 2015년 말 준공을 목표로 광주시 광산구 진곡·고룡·오선·하남동 일원에 191만㎡ 규모로 조성중이다. 광주시 미래전략산업 중 친환경자동차 부품 및 그린에너지 중심의 생산·주거·유통·지원기능이 복합된 첨단단지다. 나노산단은 201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장성군 진원면과 남면 일원에 90만2000㎡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장성군 미래전략산업 중 나노산업 연관업종인 나노기술(NT),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환경기술(ET) 중심의 산업과 연구·지원 인프라가 집적될 예정이다.

입지여건 면에서 진곡산단과 나노산단은 하남산단·첨단국가산단 등과 인접해 있어 연관된 산업단지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호남고속도로·광산IC 등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뛰어난 교통·물류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구 관계자는 "두 산단 모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돼 법인세 및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과 함께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며 "분양가가 수도권과 비교해 30~50% 이상 저렴한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은, 특성화고생 경제캠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명종)가 12월 한달간 세 차례에 걸쳐 '특성화고 학생 초청 경제캠프'를 연다.

이번 행사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통한 경제교육의 기회를 제공, 건전한 경제의식을 함양하고 합리적인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 꿈과 비전 탐색, 교양음악 감상, 직접 만드는 크리스마스 소이 캔들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함께 이뤄진다.

1차 캠프에는 송원여상 학생 48명이 참가했으며, 4~5일 이어지는 2차 캠프에는 전남여상 48명, 11~12일 3차에는 서진여고(옛 옥천여상) 48명이 각각 참여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로 오세요!

한빛타워 ---------- 분양/임대

•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빌딩
• 핵심상권에 위치 고객 흡입력 우수
• 인접상가에 비해 분양가 저렴
• 신탁회사 자금관리로 수 분양자 보호

• 시행사 | 한빛가람(유) • 시공사 | 건해종합건설(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프라임타워 ---------- 분양/임대

• 유흥 밀집지역에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우수
• 높은 층고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 후면건물 모텔 신축으로 위락시설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용등급 높은 대형건설사 책임시공

• 시행사 | (주)프라임글로벌, (주)프라임개발 • 시공사 | (주)탑인프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다성드림메디컬타워 --- 임대

• 위치·가격·품질 넘버원!
•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쇼핑 및 휴식거리 형성
• 인접상가에 비해 임대가 저렴
• 높은 전용률 극대화로 임차인 이익 실현

• 시행사 | (유)다성 • 시공사 | 남도건설(주)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 010-5587-3080 혁신도시의 모든 것 상담환영 주식회사 오 늘 나주솔로몬 공인중개사